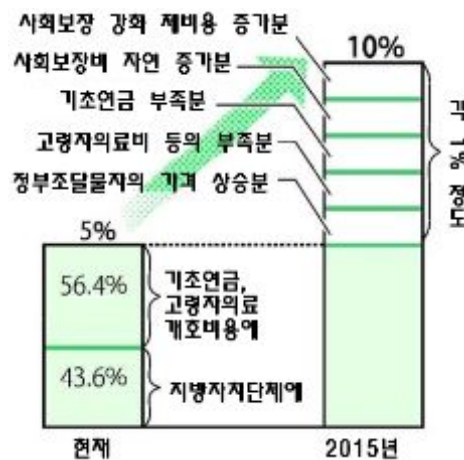
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사회보장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비세 10%로 인상 추진

- 일본 내각부는 금년 6월 하순에 확정될 ‘사회보장과 세제 개혁안’에서 사회보장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비세율(한국의 부가가치세율)을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10%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관계협의를 시작함.
- 사회보장 급여지급으로 동 재정이 매년 수 조엔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, ‘개혁안 정부회의’ 의장인 일본총리는 사회보장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현행 5% 소비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수차례 역설함.
- 내각부는 2015년까지 현행에서 5%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사회보장 분야에 4%, 정부조달물자에 1%를 추가로 지출한다는 계획임.

<그림1> 일본 소비세 인상 시 지출 계획



- 재무성은 2015년도에 사회보장 3분야(연금, 의료보험, 개호보험) 등에서 모두 27조엔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행대로라면 약 14조엔만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함.
- 이에 내각부는 소비세율 1%p 인상 시 연간 약 2.5조엔, 5%p 인상 시 연간 약 12.5조엔의 자원확보가 가능하므로 부족한 재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임.
- 일본의 현행 소비세율은 한국(10%), 독일(20%), 스웨덴(25%)보다 낮은 수준으로 1997년 3%에서 5%로 인상되었지만 더 이상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함.

(아사히신문 5/24, 요미우리신문 5/20 마이니치신문 5/21 뉴스 종합)